



해외기획

세계 주요 농약기업들의 아시아지역 투자분석

“아시아 시장을 잡아라”

시장잠재력 커 선진농약기업들 다투어 투자

황 선 구 조사홍보부 조사팀장

이 자료는 Wood Mackenzie 최근호를 번역한 것이다. 1971년부터 1995년까지 25년간 세계의 선진농약기업들이 아시아지역에 투자한 내용을 조사분석해 놓았다.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이 지역에 대한 이들기업들의 관심과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 주요 농약회사의 대부분은 미국과 서유럽 및 일본에 있다. 이 세지역이 세계 작물보호시장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이유에서 이들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성장의 여지가 크게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대로 최근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 및 인도가 큰 성장을 하고 있으며 그의 많은 국가들이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이와같은 예상치 않은 성장이 많은 농약회사의 관심을 끌었고, 일부농약회사는 이런 개도국시장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최근 이 회사들의 투자범위는 직접적인 제품판매의 또는 직판(直販) 강화에서부터 해당지역 회사의 인수 또는 새로운 제조설비의 건설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다.

이 자료의 목적은 농약회사별 최근의 투자성향, 즉 투자가 국가간에 어떻게 변해왔으며 회사들이 앞으로의 개발기회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검토하는데 있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된 국가는 호주,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대만, 태국, 베트남이다.

분석된 투자의 주 형태는 회사인수, 합작, 제조합의, 지사나 판매 사무소

의 개설, 기존시설의 확충, 지역별 회사투자의 종결이나 삭감, 생산공장의 폐쇄등이다. 이 시장에서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91년에서 95년까지의 투자건수가 주목을 받았지만 71년부터 95년까지 25년간의 투자가 검토되었다.

모두 116건의 투자건수가 분석되었다. 한 회사가 자국에 투자한 것을 뺀 이 숫자는 검토대상시장에서 서유럽과 일본회사에 의해 수행된 전략적 동향을 반영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 형태는 신시설 투자

표1에서와 같이 95년까지의 25년간을 5개년대로 구분하여 투자형태별 빈도를 측정했다.

가장 일반적인 투자의 형태는 신시설투자이다. 이것은 판매팀의 추가와 같은 협력체 움직임, 판매사무소의 개설 또는 새로운 지사의 설립에서 새로

표1. 주요농약기업들의 아시아지역 투자현황

	71~75	76~80	81~85	86~90	91~95	합 계
신시설	5	5	15	20	24	69
합작투자	2	2	2	2	6	14
제조합의	0	1	6	2	4	13
기업인수	0	1	0	5	7	13
투자삭감	0	0	1	2	4	7
계	7	9	24	31	45	116

운 R&D, 제조 또는 합성설비의 건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앞에서 언급된 협력체 움직임은 새로운 설비투자가 15건이었던 반면 연구시설은 18건, 제조설비는 10건, 합성설비의 신규설치 및 증설이 26건이었다.

투자활동의 다른 형태중 합작투자는 71년에서 90년까지 일정하게 느린 성장을 했으나 마지막 5년간의 증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과 인도가 이때 이루어진 합작투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제조합의는 1980년 이후 증가되었으나 년도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

기업을 인수한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점진적인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인수는 조사대상국 공히 아주 소규모 업체가 대상이 되어왔다. 투자삭감은 7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1건은 새로운 정부규제에 따라 인도회사가 소유한 주식의 감소였으며, 1건은 농약업무를 중단키로 한 회사의 결정에 의한 것이고, 2건은 공장폐쇄, 1건은 일본에서 엔고의 영향으로 R&D센터를 매각한 경우였다.

투자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회사가 추정하는 비용과 위험부담은 취해진 투자의 특성에 따라 아주 다양하다. 판매, 공동개발, 제조합의는 판매사무소의 개설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고려된다. 합자는 이윤은 물론 위험도를 분담하는 수단이지만 업무의 완전 소유 또는 지역회사의 완전합병에 대한 바람직하거나 필요하기도한 대체 방법일 수 있다. 연구와 개발시설 및 제조설비는 경비면에서 적용될 작업의 복잡도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합병과 합성공장의 건설은 무엇보다 가장 경비가 많이 드는 선택 분야가 될 수 있다. 완제품의 국내제조를 위한 공장은 100만~300만달러의 적은 비용으로 건설될 수 있다. 공장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예를들면 합량, 계면활성제, 제형과 같은 특수한 국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런 기능을 하도급 업자에게 위임시키는 것이다.

한편 주성분의 합성은 분량도 적지만 부가가치가 클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제품의 단위가 세계적 필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할 수 있다. 이와같은 공장의 건설비용은 3천만~6천만달러가 소요될 수 있다.

확실히 특정한 투자의 적정성을 결정하는데 있어 몇가지 요인이 검토되어야 한다. 활용해야할 많은 요인이 있지만 포함되어야 할 주요요인은 ①정치·경제적 환경 ②해당국 농약시장의 규모 및 잠재력 ③인접국 농약시장과의 교역 용이성 ④원료와 숙련 노동자의 이용성과 경비 ⑤수송 및 판매조직 ⑥특허권 보호 ⑦내부투자의

장려 ⑧규제 및 환경의 현황 ⑨공장건설비용 등이다.

무엇보다도 고려되어야할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현재 그 국가의 농약시장 가치와 그 잠재성이라 할 수 있다.

가장 규모가 큰 투자는 시장규모가 큰 일본과 시장잠재력이 큰 중국과 인도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확실하다.

중국의 시장규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존재하는 확실한 잠재력 때문에 듀폰사와 BASF사가 대표부를 개설하였고 시바사가 제조 및 포장공장을 세우는 등의 중요한 내부투자가 이루어졌다. 중국시장은 확실하고 계속적으로 식량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중압감을 받고 있는 시장으로 남아있다. 95년에 식량과 사료 모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중국은 곡류를 수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생산성 증대를 통하여 식량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보다 집약적인 농업으로의 움직임 때문에 그 잠재력은 명백한 것이다.

이러한 사항이 국가의 농약시장과 관련하여 확실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인도는 자국내의 외국인 소유주에 대한 규제완화와 무역제한의 완화로 투자의 잇점을 부여해 왔다. 이러한 규제완화가 성장하는 국내시장과 잘 발전된 화학산업 및 구조련의 남부지방과의 역사적인 무역연계로 배가되면서 그 입지를 한층 높여왔다.

25년간 14개국에 116건 투자

검토된 1백16건의 투자는 14개 국가에서 25년간 발생했다.

표2는 이 기간동안에 각국에서의 투자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각국의 농약시장규모가 그나라에 외국투자의 매력을 갖게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대부분의 농약회사가 보다 큰 농약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경향



을 우리는 역시 보아왔다. 그러나 80년 이후 인도나 호주와 같은 국가의 투자가 느린 성장을 보인 점과 비교할 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같은 소규모시장에서 보여졌던 급작스런 성장이 바로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각국에서 이뤄져온 투자의 형태를 보는 것도 역시 필요하다.(표 3)

비슷한 규모를 갖는 유럽의 산업시장과 비교해서 일본의 흡수통합 건수가 적은 것은, 아마도 일본기업들이 통합인수와 연루되는 것을 전통적으로 싫어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외국기업이 일본회사를 살 기회가 몇번밖에 없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95년에 시바사가 토모노아그리카사의 주식 50%를 구입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강력한 제조능력과 판매망을 갖춘 일본회사는 국내시장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기업이 비용을 효과적으로 들여 일본시장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일본회사가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은 제품의 판매를 통한 시장 점유를 모색하면서 많은 판매 및 제조합의를 야기시켜 왔다.

또한 일본에서 이루어진 합작투자 역시 제품전체라기 보다는 오히려 단일제품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다. 90년에 많은 다국적 기업이 과거보다는 다국적기업의 명성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지사나 판매사무소를 일본에 설치했다.

판매에 일본 파트너를 활용하던 몬산토사, 아그레보사 및 기타의 외국계 회사가 아주 최근에는 직판능력을 늘

표 2 국가별 연대별 투자건수

	71~75	76~80	81~85	86~90	91~95	합 계
일 본	2	2	12	12	10	38
인 도	2	3	8	5	7	25
중 국	0	0	0	1	14	15
호 주	0	1	2	3	3	9
말레이시아	1	0	0	3	3	7
인도네시아	1	0	0	3	1	5
한 국	0	2	0	0	1	3
태 국	0	0	1	2	0	3
베 트 남	0	0	0	0	3	3
필 리 핀	0	0	0	2	0	2
대 만	0	1	1	0	0	2
미 안 마	0	0	0	0	2	2
홍 콩	0	0	0	0	1	1
스리랑카	1	0	0	0	0	1
합 계	7	9	24	31	45	116

리기 위한 조치를 밟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제조 및 합성시설은 80년대에 세워졌으며 91년이후는 단3개의 연구시설만이 개설되었다.

자국산업보호 외세규제 직근완화

인도는 상당히 큰 농약시장인 동시에 성장잠재력이 있다. 인도정부는 여러해동안 기본적인 식량과 자체적으로 농약생산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장려해 왔다. 정부의 많은 규제조항을 국내회사에 유리하도록 만들었다. 외국인인 인도회사의 지분을 49%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했으며 외국계 회사가 인도에서 연구개발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70년과 95년 사이에 농약에 관한 아무런 생산특허도 없었거나 발명자가 인도에서 제조특허를 내지 않았으면 국내 회사들은 외국특허설명서를 기초하여 그들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더욱이 원재와 중간체에 대한

매우 높은 수입관세(110%이상)로 사실상 인도내에서의 생산을 장려하였으며 인도내에서 제조된 주성분의 50%를 제후관세가 없는 국내제조회사에 판매토록 요구하였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정책은 91년에 자유화되기 시작했다. 92년에는 농약과 중간체에 대한 수입관세가 낮아졌으며 이후 매년 낮아지고 있다. 94년 정부는 연구결과를 인도 국내회사에 알려주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외국인 소유의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제한을 해제했다. GATT합의와 더불어 인도는 95년에 지적소유권 법령을 개선하기 시작했으나 10년의 단계적 도입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외국인이 인도회사의 지분을 자동적으로 51%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생산제품 전량을 모두 수출하는 업종의 경우는 100%까지의 지분소유도 허용될 수 있으나 아직은 모든 외국인 투자제의는 정부에 의해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71년이후 인도에서 외국계 회사에 의한 기업 합병이 한건도 없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대로 소규모의 많은 합성공장이 74년과 90년 사이에 세워졌거나 확장되었으며 95년에는 이와같은 3개의 신·증설 계획이 발표되었다. 95년에 합작투자형태로 농약과 의약분야에 투자하기로 한 제네카사와 ICI사의 합의 이외에 최근 성립된 유일한 합작투자는 다우엘라코사와 Nocil사가 농약의 생산과 판매를 목적으로 94년에 설립한 DENocil사 뿐이다.

국내회사와 합작투자 쓰는 경향

중국에서의 투자건수는 지난 5년동안 크게 증가해 왔다. 긍정적인 측면은 중국이 성장잠재력이 큰 농약시장이라는 점이다. 부정적인 측면은 중국이 업무취급이 복잡하고 외국인이나 파고들기 힘들며 최근까지도 소유나 소유권 법령체계가 결여된 국가로 비쳐

진 점이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외국계 투자자들은 중국에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기를 꺼렸다. 그 결과 국내회사에서 만든 구식 제품이 중국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성능좋은 신제품이 국내회사에서 일부 복제되고는 있지만 그 대부분은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특허기간을 20년까지 확대보호한다고 93년에 제정된 법이 93년 이전에 중국에 수입된 화학기술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래도 물질특허에 대한 입장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중국계 회사의 외국인 소유를 금지한 경우는 없지만 농약분야에서 92년에 리셀사가 가정용살충제 생산회사인 치양장사를 매입한 것이 고작이다. 외국인 회사가 중국에 완전한 지분을 갖는 지사를 세울수 있고 이렇게 해야만 기술을 잘 보호관리 할 수 있지만 100% 외국인 소유회사는 세금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대외무역경제협력부장으로부터 생산제품의

상당부분을 수출하도록 강요받을 수도 있다.

91년이후 제네카, 롱플랑, 스미토모 화학등 4개사가 중국에 지사 내지는 판매사무소를 설치했다. 이와같이 중앙통제경제에서 자유시장으로의 전환 등 최근의 개혁과 외국인투자 장려정책은 중국시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했으며 중국내 생산투자의 대부분이 국내회사와의 합작투자 형태로 이루어졌다. 91년이후 7건의 합작투자 중 5건이 생산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이루어졌고 건설중에 있거나 완공된 합성시설중 3건은 국내회사를 포함시키고 있다. 가장 큰 규모의 투자는 듀폰사의 2천5백만달러의 제조제 룬다스제조공장(1991)과 난통지역에 건립될 제네카사의 6천만달러 규모의 파라콰트 생산공장이다.

호주는 동아시아지역의 다른 큰 농약시장과 비교하여 최근에 그 투자건수가 그리 많지 않다. 그 이유로는 지난 몇년간 시장성장률이 상당히 저조

표 3. 국가별 투자형태별 투자건수(1971~1995)

	판매중단	제조합의	합작투자	지사 및 판매점	연구시설	제조시설	합성시설	합 병	합 계
일 본	1	11	3	4	12	2	2	3	38
인 도	3	1	3	2	1	1	14	0	25
중 국	0	0	5	3	0	0	6	1	15
호 주	1	0	0	0	0	2	1	5	9
말레이시아	2	1	0	2	1	1	0	0	7
인도네시아	0	0	0	0	2	0	1	2	5
한 국	0	0	2	0	0	0	0	1	3
태 국	0	0	0	1	1	1	0	0	3
베 트 남	0	0	0	2	0	1	0	0	3
미 안 마	0	0	1	1	0	0	0	0	2
필 리 핀	0	0	0	0	1	1	0	0	2
대 만	0	0	0	0	0	0	2	0	2
홍 콩	0	0	0	0	0	0	0	1	1
스리 랑카	0	0	0	0	0	1	0	0	1
합 계	7	13	14	15	18	10	26	13	116



하였다. 점과 호주농업이 한발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더 빨리 성장하는 동아시아 시장을 파고들 수 있는 가능한 전초기 지로서의 장점도 없다. 최근 성사된 기업합병은 제네카사가 제조공장건설에 투자했던 것처럼 국내시장을 더 점유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 몬산토사는 현재 호주에 있는 글라이포세이트 생산공장의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투자는 몇건 안된다. 다우사가 75년에 달라폰 생산공장을 개설했고, 최근에는 ICI서펙턴트사와 2개의 국내회사가 95년에 1천만달러의 계면활성제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90년에는 시바사가 자바에 R&D거점을 개설했으며 93년에는 누팜사가 글라이포세이트 생산회사인 멀티사이다사의 주식 49%를 2백20만달러에 매입했다.

말레이시아도 역시 투자활동이 별로 없었다. 86년에 ICI사가 자사소유 파라콰트공장을 CCM사와 50:50의 합작투자사로 전환했고, 그 다음해인 87년에는 몬산토사가 글라이포세이트 공장확충에 2천5백만달러를 투자했다. 92년에는 몬산토사와 누팜사 및 앤컴사가 파시르구당지역에 새로운 글라이포세이트공장을 세우자고 제안했으나 93년에 이 계획은 무산되었다. 92년 다우엘랑코사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농약회사인 퍼시픽케미칼사의 주식 51%를 매각했고, 93년에 누팜사는 지사인 누팜프로덕트사를 설립했다.

이상에서 언급한 국가외에 일부 외국인 투자가 태국 및 베트남에서 있었다. 그리고는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외

국인 투자가 거의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왔으나 예외적인 사건은 94년에 아그레보사에 의한 한국의 미성농약(주)의 인수였다. 이때까지 외국인투자는 한국에서는 거의 없었다.

아그레보-주요품목 직판직수

앞부분에서는 인도와 동아시아에서의 투자시기와 투자지역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참여해온 회사를 점검해 보았다.

새로운 연구와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회사로는 시바, 아그레보, 몬산토로서 아그레보는 두번의 중요한 합병을 했다.

아그레보는 중국과 한국에서 현지 회사를 인수한 몇 안되는 회사의 하나이다. 러셀사가 92년 중국의 가정용 살충제 회사인 치양장 오토위스사를 인수한 반면 아그레보는 94년 한국의 미성농약을 인수했다. 89년 러셀우크라프사는 중국에서 델타메스린을 판매하기 위해 티안진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92년 생산시설을 건설했다. 95년 아그레보는 티안진사와 합작투

자로 주식이 50%에서 70%로 증가하여 5백40만 달러에 상당하며 엔도설판과 아닐로포스를 추가생산하게 되었다. 같은해 아그레보인디아는 인도와 세계시장에 공급할 목적으로 앙클레쉬와르 지역에 6백만 달러의 농약 중간체 공장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동아시아에서 아그레보의 또다른 움직임은 이전에는 일본의 동업자들을 통해 판매하던 몇가지 주요품목을 직접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최근 시바는 동아시아, 중국, 일본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80년대 아시아지역에 포장시험 지역망을 늘림으로써 90년 일본에 R&D시설을 설치했다. 94년에 중국에서 모노크로토포스를 생산하기 위해 55%의 지분을 소유한 쿵다오시바아그로와 95% 소유의 자회사인 지양수사를 합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했다. 이어 95년에 일본시장확장을 목표로 토모노아그리카를 인수했다. 이밖에도 95년 베트남에 제형과 포장시설을 완공했다.

중국에서 듀폰의 주요투자는 91년 상하이케미칼과 합작으로 2천5백만

표 4. 아시아지역에서의 농약기업별 연도별 투자건수

	71~75	76~80	81~85	86~90	91~95	합 계
Ciba	0	0	2	5	7	14
Zeneca	1	0	3	5	5	14
AgrEvo	0	0	3	2	6	11
Monsanto	0	0	3	3	4	10
Bayer	1	1	0	3	2	7
DowElanco	1	1	1	2	2	7
Rhone-Poulence	1	1	1	3	0	6
Du Pont	0	0	1	0	4	5
BASF	0	0	3	0	2	5
Cyanamid	0	3	0	0	1	4
Sandoz	0	0	1	2	1	4
기 타	3	3	6	6	11	29
합 계	7	9	24	31	45	116

달러 규모의 론다스공장을 건설한 것이다. 듀폰은 현재 중국에서 생산공장 수를 늘릴 것을 고려하고 있다. 듀폰의 또 다른 관심은 인도로서 사용기술과 스크린 농약을 개발할 9백만달러 규모의 농업 R&D센터를 건설중이다. 이 프로젝트의 3단계는 3천만달러의 농약공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바이엘-일본 중국 인도에 주력

바이엘은 대부분의 투자를 일본과 중국, 인도에 하고 있다. 일본에 자회사인 니혼바이엘아그로켄(이전의 니혼토코농약)을 통해 오랜동안 확고한 위치를 굳혀온 바이엘은 90년에 일본 유키시에 연구센터 2차과정을 건설했다. 바이엘은 현재 일본에서 직관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94년 바이엘은 농약과 종합적 식물육종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베이징의 아카데미아 시니카사와 협정을 체결했다. 바이엘은 현재 지역적으로 살충제를 생산하기 위해 중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세울 계획이다. 인도에서 바이엘은 현재 전세계 제품의 일차적 원료인 800tpa메타

시스톡스 공장을 Thane에 증설했다.

90년초에 제네카는 카라테 생산을 위해 인도의 싸이퍼메스린 생산공장에 2백만달러를 투자했으며 호주의 아취브임제 공장확장에도 비슷한 투자를 했다. 보다 중요한 투자는 중국에서 있었는데 94년 난통지역에 6천만달러의 파라콰트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지양수아그로케미칼사와 난통페트로케미칼 및 난통페스티사이드팩토리와의 합작투자를 체결했다. Reilly사는 난통파라콰트 공장에 중간체를 공급하기 위해 자국 합작회사와 함께 중국에 3천만 달러의 피리딘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바스프-제조제 시장확충에 부심

사이나미드는 70년 이후 대만에 따라치온 공장과 인도에 유기인계 공장을 가지고 있다. R&D실험실이 80년 일본 타바루에 문을 열었다. 95년에는 일본 타하라에 농약R&D실험실을 열었다. 현재 사이나미드는 중국에 제제 공장 건설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바스프가 최근의 동아시아에서 치

른 중요한 투자는 일본에서 이뤄졌다. 제조제 세톡시딤과 싸이클로헥산디온을 제조, 판매하기 위해 니폰소다 및 미쯔이와 합작회사를 설립한 것이다.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다른 회사는 92년 2천만달러의 R&D센터를 연 룬엔하스가 있다.

다우엘랑코는 동아시아-일차적으로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에서 오랜 투자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근의 투자로는 90년 필리핀에 제제시설을 설치한 것과 94년 인도에 제조와 판매 합작 투자회사인 테노실사의 설립이었다.

중국을 최근들어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시장이다. 95년 롱프랑(중국)은 그룹의 중국 활동을 위한 모회사로 설립되었다. 스미토모화학은 95년 베이징에 판매촉진과 기술자문을 위한 사무실을 개설, 중국에서 판매망 확충과 제조공장 개설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론자사는 현재 중국에서 메타알데히드 생산공장 건설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몬산토 또한 중국에서의 합작을 고려하고 있다.

농약정보

표 5. 아시아지역에서의 농약기업별 투자형태별 투자건수

	판매중단	제조합의	합작투자	지사 및 판매점	연구시설	제조시설	합성시설	합 병	합 계
Ciba	0	1	2	1	6	1	1	2	14
Zeneca	1	3	3	2	1	2	2	0	14
AgrEvo	0	0	1	1	0	2	5	2	11
Monsanto	3	1	0	0	1	1	4	0	10
Bayer	0	0	0	2	2	1	2	0	7
DowElanco	1	0	3	1	0	1	1	0	7
Rhone-Poulence	0	1	2	1	1	0	0	1	6
Du Pont	0	1	0	1	1	1	1	0	5
BASF	0	2	0	1	1	0	1	0	5
Cyanamid	0	0	0	0	2	0	2	0	4
Sandoz	0	0	0	0	1	1	1	1	4
기 타	2	4	3	5	2	0	6	7	29
합 계	7	13	14	15	18	10	26	13	116